

‘작지만 강하다’… 배터리업계, 성장성 높은 소형시장 공략

삼성SDI, e-모빌리티 시장 주력 하반기 46파이 배터리 셀 양산

LG엔솔, 소형 배터리 다각화 모바일 최적화 설계기술 보유



LG에너지솔루션의 소형 배터리 제품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업계가 소형 시장 공략에 힘을 더하고 있다. 모바일뿐 아니라 e-모빌리티, 웨어러블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형 배터리 탑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사별로 기술력을 앞세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다.

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소형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는 올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 성장한 438억달러 규모로 예측하기도 했다.

소형 배터리는 소형 가전에 주로 쓰이는 제품이다. 2000년대 휴대전화와 노트북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함께 규모를 키워왔다. 원통형과 각형, 파우치형 등으로 구분된다.

소형 배터리는 최근 원통형을 중심으

로 사용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동안 파우치형 배터리가 각광을 받으면서 수량 기준으로는 축소되기도 했지만, 원통형이 대량 생산에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다시 채용을 늘리

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용 이동장치, e-모빌리티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경기 침체로 위축된 대

신, 전자제품과 스쿠터 등에서 소형 배터리를 많이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관계자들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과 전동 공구 등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소형 전지가 저가형인 만큼 실적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배터리 업계는 성장률이 높아 앞으로도 중요한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는 각사별 전략을 마련하고 소형 배터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삼성SDI는 소형 배터리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 갤럭시 등 모바일에 오랫동안 공급해 오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파우치형과 원통형, 각형 등 모든 소형 전지를 양산할 수 있다.

삼성SDI는 모바일에 더해 e-모빌리티 시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발굴하고, 전동공구와 전기자동차 등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46파이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하며 실적 개선도 이끌어낸다는

는 복안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일찌감치 실력을 인정받은 회사로, 소형 파우치 등 다양한 소형 배터리를 새로 개발하며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배터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개 이상 바이셀을 분리막 위에 쌓고 접는 구조로,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파우치형과 각형만 만들던 SK온도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성공하면서 소형 전지 시장 진출 여력을 확보했다. 최근 최재원 SK온 수석 부회장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양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SK온이 개발한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자동차 4680형으로, BMW와 볼보 등에 적용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고출력과 고용량을 바탕으로 각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소형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경제적 운영체제로 파격 요금제 내놓을 것”

신규이통사 스테이지엑스 간담회 내년 상반기 전국망 서비스 목표

신규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올 2분기 내 법인 설립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5G 주파수 28㎐ 기지국 구축에는 6128억원을 투자한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신규이동통신사업자 추진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대표는 “스테이지엑스는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제거하고 모든 운영을 AI가 담당하는 경제적인 운영체제 만들어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8㎐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4301억원을 입찰하며 최종 승자가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정식 사업자로서

서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이통 3사보다 재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지국 의무구축 등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심지어 정부가 설정한 경매수경매 최저경쟁가격을 742억원 보다 5배가량 비싼 금액에 낙찰받으며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을 받아왔다.

이에 서대표는 “이통 3사의 5.5% 수준인 6128억원의 비용으로 의무 설치수량인 통신설비 6000대를 설치·운영할 것”이라며 “절감한 비용을 고객 혜택과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해 국내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2분기 중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구축을 시작해 2025년 상반기 전국망 통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대표는 “올해 2분기 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 구축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전국망 통신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후 28㎐ 기지국 확대뿐 아니라 중저대역 주파수도 추가로 확보해 자체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망 품질 관리부터 가입자 응대 등 서비스 운영에 있어 AI를 활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수익성까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또 “설비와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것”이라며 “통신사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코어 망 전체를 클라우드로 가상화해 경제성을 확보, 효율적 비용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ngja_tea@



(왼쪽부터)이규복 현대글로벌 대표이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 ‘현대글로벌 평택항 자동차 전용 터미널’에서 열린 “1만800대적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 초대형 車운반선 4척 확보

해양진흥공과 PCTC 확보 맞손

현대글로벌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운반선(PCTC) 4척을 확보한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난(難)을 예방하고, 사업 영향력을 강화해 글로벌 PCTC 공급 부족 사태 해소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현대글로벌은 지난 6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 자동차 전용 터미널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1만800대적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글로벌은 세계 최대 규모 PCTC 4척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해양진흥공사가 선주사업을 통해 신조발주하고, 2027년 현대글로벌에 인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현대글로벌이 확보 계획을 밝힌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엔진 PCTC 12척 중 일부다.

현대글로벌의 PCTC 추가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흡입력·AI 강화 ‘비스포크 제트 AI’ 출시

삼성전자, 2024년형 신제품 선택 자사 특허기술 바탕으로 기능 업그레이드

삼성전자 무선 스틱 청소기가 더 똑똑하고 강력해졌다.

삼성전자는 8일 2024년형 비스포크 제트 AI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삼성전자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흡입력과 인공지능(AI)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개발했다.

흡입력은 310W다. 체인코어 형태 초경량 모터 구조와 내부 핵심 부품 구조

효율화로 공기압 손실을 줄여 전작보다 20% 가까이 더 강력해졌다.

AI 기능도 더했다. 바닥 재질 등 청소 환경을 알아서 인식해 최적의 모드로 설정해준다. AI모드 2.0은 ▲마루, 카펫, 매트 등 바닥 종류 ▲청소 중 브러시가 들린 상황은 물론 ▲마루 구석을 청소하는 상황을 인식해 자동으로 흡입력을 맞춰준다. 마루 모퉁이에서는 자동으로 흡입력을 높여주는 등으로 강력 모드 대비 배터리 사용량을 25% 절감해준다.



삼성전자 2024년형 비스포크 제트 AI

미세먼지도 새지 않도록 막는다. 헤파 필터레이션을 새로 적용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느린 학습자 위한 가전설명서 발간

쉬운 글 도서 세탁기·전자레인지편

LG전자가 냉장고와 에어컨에 이어 세탁기와 전자레인지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제공한다.

LG전자는 ‘쉬운 글 도서’ 세탁기와 전자레인지편을 새로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쉬운글도서는 느린 학습자나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가전 사용 설명서다.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 아동이 가전을

쉽게 사용하고 일상의 자립을 돕는다는 목표, ‘가전 학교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행하고 있다. 가전제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과학 원리와 지식을 담은 스토리북, 쉬운 글과 그림 중심으로 쉽게 제품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별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세탁기편에는 세탁기와 옷가지 종이 모형을 구성해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종이 놀이 키트’도 포함했다. /김재용 기자